

****이사장님(15일 오후5시) 우림건설 인터뷰 질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우림건설 사보 인터뷰 질의서>

일흔 셋의 현역운동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지도자이며 여성 운동가로 뽑히신다. 대학시절 여성운동에서부터 시작해 환경으로, 전체 사회로 시각을 넓혀오며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 여러 사회기관단체와 정당에 몸담았고, 국회의원으로도 일하셨다. 지금도 소속되어 있는 곳이 많다. 여성재단 이사장,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미래포럼 이사장, 희망포럼 공동의장…… 이력을 다 정리할 수 없을 정도다. 박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지난 활동들을 간단히 짚어 달라.

지금 나이 일흔 셋, 여전히 현역 활동가로 일하시는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이사장님은 같은 세대에게 강요되었던 전통적인 여성의 삶과도 사뭇 다른 삶을 사셨다. 긴 세월 박 이사장님을 움직여온 동기는 무엇인가.

여성재단에 대해

박 이사장님이 주축이 되어 1999년 12월 한국 최초의 민간 공익기금을 표방하며 설립됐다. 처음의 취지와 활동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공익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 아주 다채롭다. 월급 0.1% 기부, 유산 1% 남기기, 100인 기부 릴레이 등. 사회기관이 목소리를 내고 공익기금 조성에 나선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가 궁금하다. 공익기금 조성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의 의식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중요성도 설파해 달라.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2005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 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자라

나는 딸들을 위해 부모가 지금 꼭 해결해야 할 과제도 대표적으로 꼽아 달라.

책 읽기와 우림..

‘일흔셋 나, 오늘도 책 읽으며 배운다’는 제목의 어느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웬만한 작가들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읽으시는가.

1993년 정당 활동을 마치고 62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었다.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런 결심을 내리기까지의 용기, 주위(특히 고인이 되신 남편 안병무 박사)의 도움, 젊은이들에 대한 권유 등..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우림건설과는 우림루미아트 여성장학금 등으로 인연이 갖고 있다. 사회 지도자이며 운동가이신 박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른 기업의 상’은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우림에 대해서도 평해 달라.